

순정이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주의 승천 대축일

제1 독서 : 사도 1, 1-11
제2 독서 : 에페 1, 17-23
복음 : 마르 16, 15-20

강론

제25차 세계 홍보의 날 교황 담화문 중에서

“일치와 발전을 위한 대중 매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올해 세계 홍보의 날 여행을 위하여 우리는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인준하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매스 미디어 교령’ 적용에 관한 사목 훈령 「일치와 발전」의 중심 메시지를 이루고 있는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공의회 교부들의 소망에 순응하여 마련된 그 훈령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그 모든 수단들의 주요 목적을 인류 가족의 일치와 발전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대중 매체(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등)는 ‘하느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확신을 지녀왔습니다(교황 비오 12세, 회칙 *Miranda Prorsus*, AAS, 24 [1957], 765면 참조).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이루어지는 그 ‘선물’의 목록은 그 사목 훈령 반포 이후 계속하여 확장돼 왔습니다. 인공 위성, 컴퓨터, 가정의 비디오와 계속 발전해가는 정보 전달 수단들과 같은 현대의 이기들은 이제 인류 가족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고찰과 재가 이 기회에 제시하고자 하는 반성의 관계는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 강력한 수단들은 그 사용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드높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개인과 인류 가족 전체의 더욱더 긴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의 재량에 맡겨진 놀라운 수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 발전과 친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려면 대중 매체는 진리, 정의, 평화, 선의, 적극적인 자선과 상호 협력, 사랑과 친교를 전해주는 채널과 그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일치와 발전, 12, 13항 참조). 대중 매체가 인간의 본성을 풍요롭게 하느냐 아니면 매마르게 하느냐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대중 매체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의 도덕관과 윤리적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25차 세계 홍보의 날이 모든 본당과 지역 공동체들로 하여금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대중 매체의 영향과 그 현실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소리

“사람답게 사는 사회”

국가 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백골단 해체—지난 1일부터 가톨릭센터에서 우리 교구 사제 30여명이 단식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안동 교구에서도 사제단이 같은 맥락의 농성을 하고 있고 다른 교구 사제들도 곧 단식 농성을 시작하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제단이 단식 농성이라는 극한적인 행동으로 나선 것은 5공 말 87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집권층은 6공 들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민주화가 크게 진척됐다는 말해왔지만 단식에 나선 사제들의 요구 사항은 6공이 5공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3공 이래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는데 더 큰 몫을 해온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는 6공 집권층도 개선의 여지를 인정, 야권과 개폐를 논의하다가 3당 통합 이후 공안 통치로 돌아서면서 이를 계속 통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이로 말미암아 양심수가 더욱 늘어났고 공안 통치의 선두부대인 백골단이 시위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해 6공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6일 저녁 국가 보안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를 위한 전주교구 제1차 시국기도회에서 강론대로 이 나라의 비극은 역대 집권자들이 국민을 우롱한데서 비롯됐고 지금도 그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통일이 쉽사리 이뤄지리라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사람답게 사는 사회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서 까닭 모르게 잡혀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현재의 급여로는 살 수가 없으니 임금을 살 수 있을 만큼 올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유, 이같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일 뿐이다.

순정이 산책



5월 15일

「노동헌장」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재 뜻깊은 회칙 「노동헌장」의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교회 또는 한국 노동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한 대학생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였다. 비인간적인 제도 아래 무지한 인간들의 집단 구타에 의한 살인, 백주(대낮)의 그 백정 놀음은 현재 교회가 관심 갖고 있는 노동의 신성함, 노동자의 인권회복 등과 언뜻 무관하게 보인다. 아마 그런 이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가 위기 상황 앞에서 행동은 하지 않고 '말의 향연'을 베푸는 모습이 연상된다.

「노동헌장」이 반포된 지 90년 만에 한때 폴란드 연대 노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3세계 노동 현실의 비참함을 보시고 그 뜻을 담은 회칙 「노동하는 인간」을 발표하셨다. 그 회칙에서 교황은 "노동문제는 사회문제의 관건... 어쩌면 본질적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노동 알레그리를 지닌 반공주의 신안인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우연히도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사망률은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는 모두 130,657명의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었으며 무려 2,236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이라크 세계의 대전쟁에서 미군이 몇 명 죽었다던가? 어쨌든 노동문제가 사회문제의 핵심임을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제 무언가 공통점이 찾아지는 듯하다. 누군가 온전한 인간들이 그저 죽고 다치고 있다. 교만하지 않은 교회라면 놀라야 하지 않을까? 사회의 본질적 핵심이 노동이고 또 그 노동상황에서의 비인간화가 이처럼 극에 달했다면 우리도 무언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적어도... 만약 놀라지 않다면 올해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노동의 의미, 노동자들의 삶, 착취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억압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노동, 하느님 창조사업의 일부분으로서의 노동 즉 예술로서의 노동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회 정체성을 묻는 시험이다. 여유있는 계층의 여유있는 현금으로 여유있는 건물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면.

실제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없이 노동만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두루두루 잘못되어 있는 셈이며, 그렇지 않게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두루두루 위선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소외당한 노동자층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대부분 재산 없는 노동층인 가난한 사람들의 '100주년' 현실을 살펴보자. 물가가 벌써 5.5% 올랐으니 올해는 다음달 말일쯤 망년회하고 문닫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 임금교섭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측은 '공권력 투입' '한 자리수 인상 고수' 등 무리한 공격을 이미 감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수입 개방 압력(이제는 남북직교역도 삼가하라는 주문도 한다)에 쿼터 높은 정부는 지기 싫어서인지 미리미리 살림을 다 내열어 놓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받은 농부들을 비롯어버렸다.

사회회칙을 현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애매모호하게 학술적으로 잘 해석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이 없어도 현실의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강경대씨의 비참한 죽음은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농촌 파멸 정책, 인플레이를 통한 기업 신장 정책 등의 무리한 강행이 빚은 직접적 결과라는 것을, 또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힘과 이윤만을 목표로 하는 정권과 자본의 지배욕의 산물이라는 점을, 힘은 큰 돈이 있어야 하고 큰 돈을 벌려면 폭력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을 계속 마음대로 착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을 '때려 죽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정은 현명한 내가, 너희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자본주의적 현실이 한국 땅에서 진정 살아 있는 '사회적 가르침'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말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바탕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고 회칙을 죽은 문서로 우상숭배하듯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교만이자 위선이다.

「노동헌장」 반포 100주년인 올해 특별히 무엇을 기념하기보다 진실해져야 하지 않을까 의문스럽다.

천주교 전주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제공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늘부보쌈

오재천 (안드레이)
정봉교 (마카엘라)
효자동 오진아파트 앞
☎ 223-0297 ~ 8

축/ 개 점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미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디도)

우리전투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설환 (조기리아)
김성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옆)
☎ 85-8848

양재 · 한복 · 흠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이)
동부시장안 · 민정당시영
☎ 86-2715

잡 관!

“생명이 경시되는 세상”

어렸을 때의 일이다. 어느 추운 겨울날 동네 골목길을 지나다가 나는 우연히 탱자나무 가지 속에서 애절하게 짖어대는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하였다. 가까스로 참새를 끄집어내어 보니 그 참새는 포수가 쓴 총에 날갯죽지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나는 내 손아귀에 있는 참새를 꼭 쥐어보았다. 그 순간 나는 참새의 두 눈에 흐르는 눈물과 따스한 체온 그리고 심장의 터질 것 같은 맥박을 감지하고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심 때문에 참새를 치료해서 날려 보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생명,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고로 우리는 그 어떠한 미물의 생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누가 파괴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다.

통계에 의하면 '86년 이후 최루탄에 의한 희생은 사망 6명, 중경상자는 1만명이 넘고, 70년대 이후 투신, 분신, 의문사가 70여명이 넘으며, 지난 4월 강경대 군이 살해된 이후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폭력(고문)을 휘두르는 쪽도 폭력(고문)을 당하는 쪽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묵비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세4, 9).

교 구 소 식

※ 교구 울드레아 : 5월21일(화) 10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1. 초·중·고 교리교사의 날(체육대회 및 시상) : 5월 19일 9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2. 전주교구 어린이 백일장·사생대회 : 5월 26일 10시-15시 천호성지.
3. M.E. 소개 모임 : 5월 18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M.E. 사무실.
4.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5월 13일(월) 10시30분 대상-미혼자, 임신이나 피임을 원하는 분. 가톨릭센터 별관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5. 호성동 성당 성전기금마련 바자회 : 5월 24일-27일 장소-인후동 성당.

※ 엄마들을 위한 영화 '베이비 붐' 상영 : 5월 20일(월) 오후2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1,000원

※ 축! 명영 : 14일(성마티아)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18일(성에릭) 윤에릭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동정성모회 : 5월19일 오후2시 동양아파트 E동 403호(0652)72-5266.
- 전교가르멜수녀회 : 5월19일 오전11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 살레시오수녀회 : 5월19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내 평화신문사(062)27-1017.
- 사랑의 씨튼수녀회(피정) : 5월25일 16시-26일 17시 본원(062)571-3004.
- 예수 그리스도수녀회 : 매월 셋째주일 오후2시 본원(0331)41-4199.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2)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여 나갑시다.

비료,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황폐화, 농약중독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약 한차례 덜 치기, 퇴비 만들기 등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봅시다.

※ 건물 청소용역 전문업체 라자로 미화 용역사

- **취급업무** : ①아파트 및 각종건물, 외부유리, 타이류청소 전문
- ②청소전문요원파견근무 및 각종 사무실 내부바닥대청소, 왁스작업일체
- **연락처** : 전주술정이 성당 내
- **전 화** : 253-3765, 251-9375
- 대표 양 동 술 (라자로)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멋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라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어린 시거리)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황수경 (크리스티나) 산부인과전문의 이승렬 (엘 리 아)

관동로 서울신락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요심이(927) 김병오



↑ 호성동 성전 기금 대바자회

1. 주관 : 호성동 성당 사목회
2. 행사 목적 : 성전 본당 공동체 일치와 타 분당과의 유대 증진
3. 일시 : 1991.5.24-5.27(4일간)
4. 사업 내용 : 판매 사업, 경품권 발매 (₩2,000) 나눔 잔치
5. 경품 내용 : 대상 1명, 액션 송승자 특상 1명, 피아노 1중 1명, 오디오 2중 3명, T.V 3중 5명, 냉방기 1대, 생활상·사물상 : 각 100명
6. 경품 추첨일 : 1991.5.27 15:00 (장소:인제) 추첨 광고 : 전북일보 (5.28일차), 순정일보, 호성동 성당 게시판

현대 기획 전북사진학원

- 상업 사진 ● 사진 교육
 - C·F 제작 ● 슬라이드 제작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28-15 ☎ (0652) 82-0700, 72-1174 최홍부 (바우로), 이수현 (수선나)

Bodima (주) 보디마 전주대리점

여드름, 기미, 검은피부, 잔주름 화장독으로 인한 문제성 피부 (상담 환원) 맞춤지 전문 전 점 속 (모니카)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1가21의4 ☎ (0652) 86-5007 자 (0652) 254-953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야외미사 : 5월 12일 일요일 장소 : 우천국교 운동장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가정방문 : • 14일 전9시-동진1반 후2시-동진2반 중노1가2반 • 15일 후2시-동진3반 중노1가4반 • 16일 전9시-중노2가15반, 후2시-중노2가14반 • 17일 전9시-중노2가13반, 중노1가3반 후2시-중노2가12반, 중노1가1반.

2. 모임 : • 자모회-14일 전10시30분 • 부녀회 월례회-15일 어머니미사후 • 재속형제회-18일 후2시.

3. 청소년부장 • 차장 객질 : 부장-최선자(보리나), 차장-박민중(노엘). 4. 축! 결혼 : 19일 12시 신랑-박병호(마르셀리노), 신부-하연하.

5. 금주 청소 : 중노1가9·10반 차주청소-중노1가11·12반.
☐ 지난주 봉헌금 : 731,050원 ☐ 교무금 : 727,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가정방문 : 16일(고사동 1반), 17일(고사동 2반).
2. 부녀회 : 16일 오전10시.
3.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19일.
4. 성우회 : 19일 공식미사후.
5. 요셉회 : 19일 공식미사후.
* 축 결혼 : 21일 12 : 30분 신랑-윤병우(베드로), 신부-이수연(오델리아).
성당청소 : 18일 황금공전Pr. 성모성년Pr.
금주 전례 : 해설-업은희 복서 • 봉헌-유복규 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복서 • 봉헌-임영모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03,590원 ☐ 교무금 : 829,4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 오늘은 예수 승천 대축일! 이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기도 드립니다.

1. 페루 선교사를 위하여 2차헌금 : 다음주.
2. 청년회 • 성가정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교리교사 체육대회 : 다음주 초·중·고 교리 및 미사-18일(토) 오후5시.
4. 성신강림 대축일 : 다음주 공식미사만 있습니다.
5. 청소년봉사 : 평화의 모후.
6. 차주 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 강덕용 ② 김순이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50,800원 ☐ 교무금 : 485,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예수승천대축일! (다음주일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회의 : ①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후 ② 프란치스코3회-다음주 후2시.
2. 모임 : ① 전례부-5월16일(목) 오후8시.
3. 알릴 : ① 수녀님들피경-5월13일(월)부터 5월18일(토) 본원에서 수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신자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② 병성제 : 5월22일(수) 병성제를 모실분이 있는 가정은 수녀원에 접수바랍니다. ③ 성모의 반행사 : 5월25일(토) 저녁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528,550원 ☐ 교무금 : 77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오늘 야외미사 : 효자 우전국민학교 교정(오전10시~오후4시).
2. 초등부 어린이소풍 : 5월21일(화) 9시30분 성당집결.
3. 예비자 교리안내 : 직장인내-목요일 저녁미사후, 주부반-금요일 오전11시, 학생반-토요일 오후5시.
4. 도서 대출 : 매주 공식미사후.
5. 수의 판매 : 전영자(골롬바) 자매 84-0481.
6. 청소년봉사 : 서완산동1가 동 • 서편.
☐ 지난주 봉헌금 : 402,030원 ☐ 교무금 : 459,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오늘 예수승천 대축일! * 시순절 돼지저금통 봉헌바람.

1. 승천 야외행사 : 오늘 오전10시, 우천국교(효자동).
2. 자모회 : 다음주 오전10시. 첫영성체 교리-매일 오후4시.
3. 5월 성모성월 : 각Pr. 성모당 인체기도-저녁미사후.
4. 나라를 위한 미사 : 매주 수요일 아침 • 저녁미사.
5. 성모회 : 15일(수) 오전11시.
6. 축! 결혼 : 신랑-유영균(베드로), 신부-최은정(마르타) 5월 17일 12시 전동성당. ☐ 지난주 봉헌금 : 1,600,740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 1,200,000원
* 현재모금총액 : 223,484,369원
* 금주보수비헌금액 : 없음 * 현재신입총액 : 253,119,618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LM 성지순례(옥외행사) : 6월9일 참가비-5,000원(점심제공) 5월26일까지 접수, 협조단원과 뜻있는 신자들 환영함.
2. M. B. W(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 27일~31일까지 저녁7시 30분~10시, 회비-2,000원 사목위원, 구역반회장, 단체장 의 부.
3. 푸르실로 교구 울드레아 : 21일 전10시 혜성학교 윤호관 불참 하시는 분도 회비는 납부 하셔야 됩니다.
4. 교적없는 교우와 쉬는 교우 방문 : 16일-1구역, 17일-2구역.
5. 초·중·고 교리교사의 날 : 19일 전9시 혜성학교 윤호관에서.
6. 회의 : 15일-성모회 10시30분, 19일-청년회(다음주 저녁8시).
7. 페루 선교사를 위한 헌금 : 다음주에 준비해 오시기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676,810원 ☐ 교무금 : 284,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야외미사 : 오늘 오전10시, 장소-효자우전국민학교.

1. 반모임 : 14일(화) 오전10시30분-화산2가B, 오후2시30분-평화 • 성원, 오후8시-삼정2동 15일(수) 오전10시30분-금화 • 송원, 오후2시30분-화산2가A.
2.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초중고 학생 및 여성분과 소풍 : 21일(화), 장소-변산.
4. 청소년봉사 : 은총의 증개자Pr.
5.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 성원골드멘션, 신일APT, 기타 이사로 신분.
* 차주 전례 : 김용무 복서 • 봉헌-민혜리 • 유대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흥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1. 경축 : 예수승천대축일(오늘10시 남전주지구 야외합동미사).
* 준비물 : 미사도구 점심, 운동에 편리한 간편복장(본당미사는 새벽6시와 저녁7시만 있습니다). 2. 가정방문 : 쌍용A동편-화·수·금요일, 삼천주공A동편-화·수·금요일. 3. 가족사진과 주민등록번호제출요망. 4. 모임안내 : ① 모니카회 데레사회-수요일 오전10시30분 ② 울드레아-다음주 21일(화) 오전10시(혜성학교 윤호관 5월모임을 겸하오니 전원 참석바랍니다). 5. 예비자교리시간내 : 일요일-오전10시30분, 목요일-오후7시30분, 금요일-오전10시40분, 토요일-중·고생교리 오후6시. * 전신자가 예비자 1분씩 꼭 인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86,110원 ☐ 교무금 : 1,826,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축! 예수승천 : 우전국교에서 합동미사.

1. 단식중에 계시는 신부님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울드레아 : 공식미사후.
3. 공소미사 : 17일(금) 저녁7시 30분 두현리 새벽5 : 00, 치유
4. 은혜의 밤 : 17일(금) 저녁 기도-서윤 김바리아회장님. 5. 평일 미사에 적극 참여바람. 6. 가족사진을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 차주 모임 : 사목회
차주 전례 : 해설-임창수 복서① 권호상 ② 허선영
기도-김상권, 이귀일
☐ 지난주 봉헌금 : 844,540원 ☐ 교무금 : 835,000원

※ 호성동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 5월24일~27일 장소-인후동 성당